

특집  
논문

# 86세대의 집단 간 사회적 자본과 정치적 정체성 비교

학생운동 활동가를 중심으로

김형철 \_성공회대학교

## 논문요약

이 연구는 86세대 내 세대 단위와 실제 세대 사이에 사회적 자본과 정치적 정체성의 특징을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7년 7월 5일부터 7월 21일까지 전대협동우회 및 전국대학민주동문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대협 30년, 전대협 활동가 정치의식조사 데이터를 이용했다. 분석 방법으로는 사회적 자본의 정도와 정치적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수행했으며, 86세대 내 집단인 실제 세대와 세대 단위 사이의 비교를 위해 집단 간 평균 분석 기법을 이용했다. 분석 결과 86세대 내 세대 단위는 호혜성과 연대성 그리고 정치 관심도가 실제 세대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정치적 정체성의 다른 요인인 정치적 효능감, 정치 참여도, 이념 성향, 안보와 경제 및 사회복지에 대한 태도 그리고 정치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세대 단위와 실제 세대 사이에 차이가 없어 동질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정도가 높을수록 정치적 효능감과 참여도가 높고 이념 성향과 안보에 대한 태도에 있어 진보적 성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주요어: 사회적 자본, 세대 단위, 실제 세대, 정치적 정체성, 86세대

DOI: <http://dx.doi.org/10.31008/MV.37.1>

##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1987년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86세대 내의 집단 간 사회적 자본이 정치적 정체성에 미친 영향을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세대 내 집단을 세대 단위(generation unit)로서 역할을 수행한 학생운동활동가와 86세대 내의 집합적 연대감과 구성원의 소속감을 갖는 실제 세대(generation as an actuality)로 구분하여 사회적 자본과 정치적 정체성의 특징을 비교했다. 이 연구를 위해 1987년 6월항쟁 이후 8월 19일에 결성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 활동가를 포함한 학생운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정치의식조사 자료를 이용했다. 그리고 설문조사는 전대협동우회 및 전국대학민주동문회 회원을 대상으로 2017년 7월 5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했다.

이 연구는 86세대 내 집단 간 정치적 정체성을 비교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을 주요한 분석 개념으로 사용했다. 사회적 자본은 협력적 행위를 촉진시키고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조직을 의미하며 호혜성의 규범, 상호 신뢰 그리고 시민적 참여의 네트워크로 구성된다(피트넘 2000, 281). 이 같은 사회조직으로서의 사회적 자본은 역사적 그리고 사회적 맥락에 의해 형성되며, 민주정부의 반응성과 효과성이라는 민주적 수행력(democratic performance)뿐만 아니라 협력 정치(governance)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한국에서 사회적 자본, 즉 호혜성의 규범, 상호 신뢰 그리고 시민적 참여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저항의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즉, 일제

강점기에 독립을 위한 저항 과정에서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희생과 이타심, 평등에 기초한 상호 신뢰와 연대 의식, 그리고 민중의 참여의식과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독재에 대한 저항의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이 형성·발전했다. 이 같은 저항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적 자본은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주의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최근에 사회적 자본이 민주주의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사례는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시민들의 촛불혁명이다. 촛불혁명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이끌어냈으며, 민주정부를 재탄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사회적 자본이 반응성과 효과성이라는 민주적 수행력에 영향을 주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민주화 이행과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논함에 있어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자본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민주화 운동의 주요한 주체 세력이었던 학생운동 세력이 형성한 사회적 자본을 떼어놓고 논할 수 없다. 반독재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학생운동 세력은 헌신과 희생, 상호 신뢰와 연대, 참여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이에 기초한 정치적 정체성을 보이고 있다. 즉,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적 자본은 민주화 이후에 한국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때 86세대를 저항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86세대의 정치적 정체성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그 논의의 핵심은 86세대의 정치적 정체성이 보수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수의 연구는 제17대 대통령선거부터 86세

대의 진보성이 실종되었으며, 세대 효과가 아닌 연령 효과가 투표 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었음을 지적한다(강원택 2009; 박명호 2009; 서현진 2008). 즉, 86세대는 나이가 들면서 보수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민주화라는 정치적 사건을 통해 형성된 정체성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과연 86세대의 정치적 정체성은 변화되었는가? 기존의 연구는 86세대를 생물학적 시간대로 구획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세대의 정치적 정체성 변화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즉, 생물학적 시간대에 따른 구획은 세대 간 비교에 있어 편의성과 용이성이 있지만 한 세대 내에 존재하는 정치적 정체성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하임(Karl Mannheim)은 세대를 세대 위치(generation location), 실제 세대, 세대 단위로 구분하고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동일한 세대 위치를 점유한 세대가 세대 내의 집합적 연대감 및 구성원의 소속감을 가질 때 실제 세대로 구성되며, 세대 단위는 연대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이 같은 세대 내 집단 구분은 한 세대의 정치적 정체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대를 분석 단위로 하는 연구에 있어 한 세대를 구성하는 집단으로서의 세대 위치, 실제 세대, 그리고 세대 단위를 구분해서 세대 내 집단의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86세대 내의 집단 중 세대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연대감 및 구성원의 소속감이 강한 세대 단위와 약한 실제 세대를 구분하여 사회적 자본에 따른 정치적 정체성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

다.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86세대의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한 후 86세대와 사회적 자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3절에서는 86세대의 사회적 자본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 가설 및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4절에서는 세대 단위와 실제 세대 사이에 사회적 자본과 정치적 정체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결론에서 한국 민주주의에 있어 86세대에 형성된 사회적 자본이 갖는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논의: 86세대와 사회적 자본

### 1) 86세대 연구의 경향과 한계

정치적 세대(이하 세대)란 생물학적 연령과 달리 중요한 역사적·정치적 사건을 통해 형성된 가치관, 정치의식과 태도, 그리고 정치적 행위양식, 즉 정치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회집단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세대 구분에 있어 연령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세대는 출생 시점의 동질성과 역사적·정치적 경험의 동시성을 통해 구성된다(고원 2005, 202). 일반적으로 집단적 가치 정향이 내면화되는 세대 형성기는 연령적으로 17세에서 25세이며(정진민 1994), 이 연령대에서 경험한 역사적·정치적 사건이 세대로서의 집단을 형성하게 한다.

만하임은 세대를 세대 위치, 실제 세대, 세대 단위로 구분하고 사회

변동 및 사회운동적 함축을 강하게 갖는 집단으로서 세대를 세대 단위와 실제 세대라고 지적한다(Mannheim 1952). 동일 세대로서의 위치만을 공유하는 세대 위치는 특정한 시공간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공유하는 역사적·정치적 상황의 동일성에 의해 구성된 집단인 반면 실제 세대는 세대 위치 내에 있는 구성원들이 집합적 연대감 및 구성원의 소속감을 가짐으로써 구성된 집단이다(박병영 2007, 85). 마지막으로 세대 단위는 실제 세대를 구성하는 연대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세대로서의 정체성이 강한 집단이다. 그리고 세대 단위를 통해 세대를 특징짓는 정치적 정체성, 즉 가치관과 정치적 태도 및 행위가 공유되어 의미 있는 세대로 구성된다.

이 같은 세대의 특징은 다른 세대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분별성과 연령이 높아져도 역사적·정치적 경험에 의해 공유된 가치관이나 정치적 태도와 행위 양식이 쉽게 변하지 않는 지속성을 특성으로 한다(Mannheim 1952; Inglehart 1977). 세대의 또 다른 특성은 세대 간 불연속성이다. 즉, 어떤 세대는 극적인 저항을 집단적으로 경험하는 데 비해 다른 세대는 전혀 그렇지 못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원 2005, 202). 그러나 세대의 특성으로서 불연속성은 세대 간 특징만이 아니라 세대 내의 세대 위치, 실제 세대, 그리고 세대 단위 사이의 차이를 보이는 특성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생 시점이 동질적이고 역사적·정치적 사건이 동시적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학생운동을 한 집단과 소극적 참여 집단 그리고 무관심 집단 사이에 가치관이나 정치적 태도와 행위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세대의 중요성은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의 후보자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진행된 선거연구에서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요인은 지역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2002년 대통령 선거는 김대중·김영삼·김종필로 대표되는 3김 정치의 퇴장과 함께 지역균열의 퇴조와 동시에 진보와 보수 사이의 이념균열과 세대균열의 등장을 특징으로 한다. 이후 선거 연구에서 세대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86세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강원택 2009; 박명호 2009; 오세제 2015; 오세제·이현우 2014). 이와 더불어 특정 세대인 86세대의 가치관, 정치의식과 태도 등을 포함한 정치적 정체성의 특성 및 지속과 변화 등을 분석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고길실 2010; 고원 2005; 박병영 2007; 조대엽 2002).

세대연구가 86세대에 초점이 맞춰진 이유는 세대 위치의 동질성을 갖는 집단으로서 권위주의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저항이라는 역사적·정치적 경험을 공유했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집단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조대엽 2002). 또한 86세대는 다른 세대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민주화와 개혁 진보적 가치와 이슈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왔고(고원 2005, 203-204), 다른 세대와 가치 정향과 정치 행태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오세제·이현우 2014, 203). 86세대는 단지 권위주의 정권의 퇴진만을 외친 것이 아니라 시대정신 및 세대정신을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희생과 헌신, 상호 호혜성, 강한 연대 의식과 동질성을 보이고 있다(고길실 2010).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86세대가 보수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제17대 대통령선거를 분석한 다수의 연구는 86세대의 정치적 정체성과 투표 행위가 다른 세대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나이가 들면서 보수화되는 연령 효과가 지배적이었음을 주장한다(강원택 2009; 서현진 2008; 박명호 2009; 박원호 2012). 즉, 86세대에서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에서 나타난 세대 효과가 소멸 또는 약화되었다고 평가한다.

세대 효과의 소멸 또는 약화의 원인은 86세대의 동질성 약화에서 찾을 수 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 세대의 정체성을 연구한 박병영(2007)은 민주화운동 당시 민족, 민주, 민중이라는 삼민주의 이념에 기초한 86세대가 민주화 이후 균열 구조의 변화와 생애주기의 변화에 의해 다른 세대와 차이가 완화되고 동일 세대 내 동질성이 약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민주화 이행, 현실 사회주의권의 재편, 'IMF 사태' 이후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북한 경제의 위기와 남북관계의 진전 등의 구조적 지형의 변화는 삼민주의 이념에 기초했던 86세대의 이념적·정치적 정체성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40대에 접어든 86세대가 사회의 중심부에 진입함으로써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박병영 2007, 90).

반면에 86세대가 연령 효과에 의해 보수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고원은 86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진보적이거나 이념적이라는 것은 오해에 의한 것이며, 오히려 개혁 지향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현실과 타협을 잘하는 합리적 태도를 견지해왔다고 지적한다(2005, 205). 그는 86세대가 보수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근거는 없으며

세대 내에서의 정치적 분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원 2005). 또 다른 반론은 제17대 대통령선거뿐만 아니라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86세대가 보수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세대 효과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노환희 외 2013; 이남영 2008; 오세제 2015; 오세제·이현우 2014; 황아란 2009). 제17대 대통령선거 결과를 분석한 이남영(2008)은 세대의 영향력이 유지되었으며, 황아란(2009)도 86세대의 경우 참여정부에 대한 실망에 의한 투표 행태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86세대의 세대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음을 주장하는 연구도 존재한다(노환희 외 2013; 오세제 2015).

이렇듯 86세대의 세대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는 연구에서 의미 있는 주장은 세대 내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즉, 고원(2005)이 강조한 세대 내의 ‘정치적 분화’, 오세제·이현우(2014)의 연구에서 제기한 86세대에는 진보적인 사람과 보수적인 사람이 함께 존재한다는 ‘세대의 양면성’과 ‘조건적 세대 효과’는 86세대의 세대 효과를 분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제공한다.

86세대의 세대 효과 또는 정치적 정체성 변화와 지속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86세대의 범주화와 관련하여 만하임이 지적한 의미 있는 세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기존 연구는 세대를 범주화할 때 단지 세대 위치만을 고려했다.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만하임의 세대 개념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만하임은 진정한 세대를 단지 동일 세대로서 위치만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아닌 특정한 역사적 시간을 경험하면서 연대성과 소속감을 갖는 실제

세대와 실제 세대 내에서 내부적인 결속력을 강하게 가지는 세대 단위로 보았다. 따라서 86세대를 범주화할 때 단지 1961~1968년생이 아닌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경험 과정에서 적극적·소극적 참여를 통해 연대성, 소속감 그리고 내적 결속력을 형성하게 된 집단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86세대 내에 존재하는 집단들 사이의 연대성, 소속감 그리고 결속력이라는 속성의 정도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속성의 차이는 세대의 정치의식과 태도 그리고 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세대 위치를 같이 하는 86세대들이라고 하더라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연대성, 소속감 그리고 결속력이 강했던 집단은 나이가 들어도 정치의식과 태도 그리고 행위에 있어 정치적 정체성을 유지하지만, 연대성, 소속감 그리고 결속력이 약했던 집단은 정치적 정체성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86세대에서도 실제 세대와 세대 단위를 구분하여 이들의 정치의식과 태도 그리고 행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조건은 민주화 이행이라는 역사적 그리고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된 86세대의 사회적 자본의 정도이다. 86세대의 사회적 자본은 약자로서의 민중에 대한 애정(조대엽 2002, 135)과 사회정의와 진리를 위한 희생과 헌신(고길설 2010, 119)이라는 호혜성 규범과 저항의 과정에서 형성된 강한 상호 신뢰 그리고 전대협과 같은 학생운동조직을 통해 형성된 시민적 참여의 네트워크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86세대의 사회적 자본의 강도는 86세대의 정치적 정체성의 지속과 변화를 설명하는 주요한 독립변인이 될 것이다.

## 2) 86세대와 사회적 자본의 정도

“자유 의 나무는 매순간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로 세워진다(The tree of liberty must be refreshed from time to time with the blood of patriots and tyrants.).” 이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토마스 제퍼슨이 한 말이다. 이 격언은 자유를 얻기 위해선 그 만큼의 자기 헌신과 희생을 감내하는 투쟁이 요구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인간이 누려야 할 자유와 평등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는 점에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로 이해될 수 있다. 즉, 민주주의는 ‘피’로 표현되는 자기 헌신과 희생을 전제로 할 때만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쟁취하고 지키기 위해 함께 하고자 하는 참여와 연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향유하는 민주주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자기 헌신과 희생, 참여와 연대를 통해서 독재자로부터 얻어낸 성과물인 것이다. 비록 6월 민주항쟁이 미완의 혁명 또는 불완전한 승리로 끝나고 말았지만 우리는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불의에 대한 저항의식, 참여의식, 그리고 연대의식이 인권과 시민적 권리를 지키는 동력이라는 교훈을 얻었다. 6월 민주항쟁은 정당하지 못한 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 유린과 주권 및 시민적 권리의 억압에 대한 저항이었으며, 사회정의와 공공성 실현을 위해 전 국민이 하나가 된 투쟁이었다.

86세대는 6월 민주항쟁의 경험 속에서 다른 세대와 구별되는 사회적 자본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의 강도에 따라 세대 내의 분

화를 보이고 있다. 86세대와 다른 세대 사이의 사회적 자본의 차이는 먼저 호혜성의 규범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 호혜성이란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서로 나누거나 교환하는 행위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택이나 행위의 기준을 마련해주고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송경재 2013, 229). 호혜성은 타자에 대한 포용성과 헌신으로 나타난다. 86세대는 민주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대적 과제였던 민주화를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치열하게 살았으며, 새로운 사회의 주체로서의 민중을 위한 삶을 선택하고 그들과 연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즉, 1980년대의 대학생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죽어간 사람과 군부권위주의에 억압받는 민중에 대한 부채감과 책임감을 안고 있었으며, 민주화 이행에 헌신하는 것이 역사적 의무처럼 느꼈던 것이다. 따라서 86세대들은 학생운동을 하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정치적 이해나 잔피나 술수 등을 생각할 수 없었다(김동현 2007, 13).

다음으로 상호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 요인으로 공동체 내의 구성원 간 연대감과 신용도를 확장시켜 참여를 촉진한다(송경재 2013, 228). 86세대의 신뢰는 공동체 의식 또는 연대 의식으로 표출되었다. 즉,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민중공동체가 상상의 공동체였지만 강력한 연대 의식과 끈끈한 선후배 관계가 존재했으며, 누구의 주머니에 든 돈이든 공유되는 것이었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자는 것이 모두 함께 해결할 문제로 인식되었다(조대엽 2002, 141). 그리고 저항의 과정에서 집단행동을 통해 상호 간의 신뢰를 쌓았으며, 이것이 연대 의식과 공동체 의

식으로 외화되어 나타났다. 86세대의 강한 연대 의식은 의미 있는 세대로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전대협과 같은 학생운동조직은 민주화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를 구조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시민적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개인이나 집단 등 사회적 행위자들이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관계들이나 관계들의 집합체이다(차재권·류태건 2017, 57). 민주화 과정에서 86세대들은 학생대중조직으로서의 총학생회 및 학회 등을 구성하여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며 이를 통해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거나 소극적인 참여를 동원했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도 전대협 동우회나 민주동문회를 결성하여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참여하는 사회 세력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86세대의 사회적 자본은 진정한 세대로서의 정치의식, 태도 그리고 행위에 있어 진보 개혁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과거 10년 간 실시된 선거 결과를 보면 조건적이지만 86세대의 진보 개혁 정체성이 변화하고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즉, 86세대 내의 동질성이 약화되고 있다. 박병영(2007)은 그 원인을 정체성 구축과 정치적 세대를 형성했던 균열 구조의 변화와 생애 주기의 변화에서 찾고 있으며, 조대엽(2002)은 저항적 권위주의, 연고주의, 적응적 모험주의 그리고 유연적 전통주의라는 86세대의 특징이 기성 문화에 대한 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적응의 가치에서 찾고 있다. 반면 고원(2005)은 86세대가 이념 지향적이거나 진보적이지 않고 오히려 현실과

타협도 잘하는 현실주의자의 면모를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86세대 내에 진보 개혁적인 정치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집단과 정치적 정체성이 변화하는 집단 사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86세대 내에 존재하는 정치적 정체성의 차이의 원인을 사회적 자본의 정도에서 찾고자 한다. 즉, 86세대 내에 존재하는 세대 단위와 실제 세대 사이에 사회적 자본의 정도가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가 정치적 정체성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유대감의 정도를 기준으로 나누고 있다(퍼트남 2000: 22-23, 135-137; Granovetter 1973). 그리고 퍼트남(2000; 2009)은 강한 유대감에 기초한 결속형(bonding) 사회적 자본과 약한 유대감에 기초한 연계형(bridging)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한다.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내부 지향적, 배타적 정체성 그리고 단체의 동질성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연계형 사회적 자본은 외부 지향적이며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망라하는 포괄성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Putnam 2009, 25-26).

이 같은 사회적 자본의 유형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차재권·류태건의 연구(2017)는 강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가족이나 친구 등의 결속 집단에 대한 신뢰라는 '일체감 근거 신뢰'에 강한 긍정적 영향을 주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와 같은 제도에 대한 신뢰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사회적 자본이 강한 결속 집단의 경우 구성원 간에 강한 신뢰를 가지며 정치적 정체성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며, 사회적 자본이 약한 집단의 경우 구성원 간

에 약한 신뢰와 더불어 정치적 정체성의 동질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자본의 유형은 세대 또는 세대 내 집단 간 동질성의 차이뿐만 아니라 정치적 정체성의 차이와 변화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분석도구가 될 것이다.

### 3. 조사 및 분석 방법

#### 1) 연구 가설, 데이터 및 분석 방법

86세대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정도가 강한 세대 단위와 약한 실제 세대 간의 정치적 정체성을 비교하고, 86세대의 보수화 경향을 설명함에 있어 결속형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세대 단위와 연계형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실제 세대 사이에 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실제 세대 내에서 결속력이 강한 세대 단위는 사회적 자본이 강하며 따라서 정치적 정체성의 동질성과 유지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반면 결속력이 약한 실제 세대는 사회적 자본이 약하며 그 결과 정치적 정체성에 있어 세대 단위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1. 세대 단위와 실제 세대 사이에 사회적 자본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세대 단위와 실제 세대 사이에 정치적 정체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 86세대에 있어 호혜성과 연대성은 정치적 정체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 연구에서 86세대를 세대 단위와 실제 세대로 한정하는 이유는 만하임의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만하임(Mannheim 1952)은 출생 시점의 유사성에 기초한 사회적 위치를 세대 위치라고 개념화했으며, 세대 위치는 역사적·정치적 사건의 경험 속에서 공동 운명에 참여하여 연대감이 형성되지 않은 사회적 위치에 있는 상태로서 실질적인 세대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반면에 세대 위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정치적 사건의 경험 속에서 상호 간에 연대감이 형성되고 새로운 상황을 창출하는 힘의 상호작용을 능동적·수동적으로 경험할 때 실질적인 의미의 세대라고 지적한다(박재홍 2003, 9-10). 실질적인 의미의 세대는 실제 세대와 세대 단위로 구분되는데, 실제 세대는 세대 위치를 공유한 사람들이 특정한 역사적 시간을 경험하면서 연대성을 갖고 새로운 사회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힘을 경험하는 집단이며, 세대 단위는 실제 세대 내에서 내부적인 결속력을 강하게 가지는 집단이다(조대엽 2002, 126). 만하임은 실제 세대가 역사적 자극에 대한 상이한 반응 양식에 따라 몇 개의 세대 단위로 분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Mannheim 1952, 304).

만하임의 세대 개념에 기초했을 때, 86세대의 실제 세대는 민주화 과정에서 능동적 또는 수동적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연대감을 형성

한 집단이라 할 수 있으며, 세대 단위를 내부적인 결속력을 강하게 가지면서 세대 가치나 세대 정신에 철저하고 민주화운동을 조직화하고 주도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주화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실제 세대를 전대협동우회 및 민주동문회 회원 중 과거 전대협 간부로 활동하지 않은 집단으로 그리고 세대 단위는 과거 전대협 간부로 활동한 집단으로 구분했다. 전대협 간부 여부를 중심으로 세대 단위와 실제 세대를 구분하는 이유는 6월 민주항쟁을 이끌었던 학생운동 세력 중 가장 큰 분과가 전대협을 결성했으며, 또한 민주화 운동을 조직하고 주도한 총학생회장단 및 학생회장단이 전대협의 간부로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sup>1)</sup>

다음으로 사회적 자본의 정도는 과거 학생운동에 참여한 것에 대한 자부심과 전대협 활동이 민주화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전대협 동우회 또는 민주동문회에 갖는 유대감과 참여도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사회적 자본은 호혜성의 규범과 신뢰 그리고 시민적 참여의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이 연구에서는 설문항의 한계로 인해 신뢰를 제외하고 호혜성의 규범과 시민적 참여의 네트워크만을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사내용 중 전대협 활동이 한국

1) 6월 민주항쟁 당시 대중노선을 지향하는 학생운동 세력(민족해방: NL)은 8월 19일 충남대학교에서 전대협을 결성했다.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한 전대협은 6월항쟁 이후 개방된 민주화의 공간 속에서 민주정부 건설을 위한 선거운동, 1988년 이후 통일운동과 광주·5공 청산 투쟁, 3당 합당 반대 투쟁 등을 전개했으며 전대협 6기를 마지막으로 해체되었다.

민주주의에 기여하는지와 전대협 활동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전대협 동우회 및 민주동문회 참여와 유대감을 묻는 설문 문항을 추출하여 요인분석을 수행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정체성은 개인이나 집단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정치에 대한 의식, 태도 그리고 행위의 특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치적 정체성은 개인이나 집단이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에 의해 규정된다. 86세대의 이념과 가치는 민족·민주·민중이라는 삼민주의로 표현된다(박병영 2007, 86-87). 이들 이념과 가치는 민주화 이후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정치 정향과 정책에 대한 태도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혁 방향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이 연구는 86세대 내의 실제 세대와 세대 단위 사이에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정책에 대한 태도, 그리고 정치제도와 헌법 개혁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정치적 정체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한 자료는 전대협 결성 30주년을 맞이하여 2017년 7월 5일부터 7월 21일까지 전대협동우회 및 전국대학민주동문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대협 30년, 전대협 활동가 정치의식조사’이다. 이 조사의 총 응답자는 423명이다. 이 중 90학번 이하를 제외한 응답자 38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방법으로는 사회적 자본의 정도와 정치적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86세대 내 집단인 실제 세대와 세대 단위 사이의 비교를 위해 집단 간 평균 분석을 위해 일원 변량 분석(One-Way ANOVA) 기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
성별(381명)	남자	309	81.1
	여자	72	18.9
입학년도(381명)	1984 이전	51	13.4
	1984	59	15.5
	1985	69	18.1
	1986	55	14.4
	1987	66	17.3
	1988	44	11.5
	1989	37	9.7
간부 여부(381명)	예	150	39.4
	아니오	231	60.6
최종 학력(381명)	4년제 대학 재학/졸업	280	73.5
	대학원 재학/졸업(석사/박사)	101	26.5
직업(381명)	농업/임업/어업	13	3.4
	자영업	82	21.5
	판매/영업/서비스업	98	25.7
	생산/기능/노무직	26	6.8
	사무/기술/전문직	14	3.7
	실직/무직	148	38.8
고용 상태(375명)	고용 중(정규직, 주 32시간 이상)	171	45.6
	고용 중(비정규직, 주 15~32시간)	40	10.7
	고용 중(비정규직, 주 15시간 이내)	11	2.9
	고용주	101	26.9
	가족 일을 돕는다	11	2.9
	실업상태	17	4.5
	은퇴	4	1.1
	주부	16	4.3
	기타사유로 노동할 수 없음	4	1.1

## 2) 설문 응답자의 특성과 요인 분석 결과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으로서 성별, 대학교 입학년도, 전대협 간부 여부, 학력, 직업, 그리고 현재 고용 상태는 <표 1>과 같다. 우선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309명으로 81.1%이며, 여성은 72명(18.9%)이다. 다음으로 입학년도의 경우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학년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전대협 간부 여부와 관련해서는 381명 중 39.4%인 150명이었으며, 나머지 231명은 전대협 간부 경험이 없다. 최종 학력은 대학원 재학/졸업이 101명으로 26.5%이며, 4년제 대학 재학/졸업이 73.5%이다. 다음으로 직업은 실직 및 무직이 38.8%(148명)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영업/서비스직이 25.7%(98명), 자영업 21.5%(82명)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6개 설문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을 한 결과이다. 우선 6개 설문 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크론바흐(Cronbach)의 알파값이 0.597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설문 항목은 신뢰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베리맥스(varimax)를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수행했으며, 적실성 검증기법으로 Maiser-Meyer-Olkin(KMO) 측도와 Bartlett 구형성 검정을 이용했다. 그 결과, KMO 측도는 0.671로 검정되었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는 99%의 신뢰 수준에서 근사 카이제곱 254.325(자유도 15)로 나타났다. 이는 요인분석 결과가 적실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인분석에 의한 성분표 <표 2>를 보면, 전대협 활동에 대한 자부심과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전대협 시대정신의 중요성이

〈표 2〉 사회적 자본 요인분석 결과

항목	1	2
선생님은 과거 전대협 활동가로서 학생운동에 참여했다는 자부심이 어느 정도입니까?	.685	.184
전대협 활동이 현재까지 한국의 정치 민주화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774	-.009
전대협 활동이 현재까지 한국의 경제 민주화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600	.004
전대협 출범 선언문의 “외세배격, 독재종식, 민주정부 수립, 조국의 평화통일”의 가치를 오늘날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까?	.549	.254
전대협 동우회 또는 민주동문회 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십니까?	.024	.853
전대협 동우회 또는 민주동문회에 갖는 정서적 유대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186	.816

하나의 요인 1로 구성되었으며, 전대협 동우회 또는 민주동문회의 참여와 정서적 유대감이 다른 하나의 요인 2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요인 1로 구성된 잠재 변인을 자기희생에도 불구하고 전대협 활동에 대한 자부심과 한국 민주주의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호혜성의 규범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요인 2는 전대협 동우회 및 민주동문회 활동의 참여와 유대감의 정도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연대성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정치적 정체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이념 성향과 정책에 대한 태도, 그리고 정치제도 및 헌법 개혁에 대한 태도를 묻는 설문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수행했다. 먼저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제19대 선거 관심도와 참여에 관한 설문 문항 중 10개 문항을 추출하여 요인분석을 했다. 먼저 이들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크론바흐(Cronbach)의 알파값이 0.435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설문 항목은 신뢰성을 갖고 있음을 확

〈표 3〉 정치적 관심과 참여 요인분석결과

항목	1	2	3
선생님께서서는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684	.125	.165
선생님께서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스마트폰 /SNS를 얼마나 활용하셨습니다?	.587	.059	.178
선생님께서서는 이번 대통령선거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습니까?	.552	.275	.035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큰 차이가 있다	.102	.804	-.024
어떤 후보에게 표를 던지느냐가 미래의 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156	.777	.061
투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내가 투표하는가 안하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277	-.545	.085
나 같은 사람에게는 투표만이 정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433	.480	.190
19대 대선 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주최한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적이 있으십니까?	.113	.044	.826
19대 대선 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 자원봉사 활동을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096	-.084	.810
19대 대선 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적이 있으십니까?	.100	.056	.686

인했다. 다음으로 베리맥스(varimax)를 이용해서 요인분석을 한 결과, KMO 측도는 0.692였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결과는 99%의 신뢰 수준에서 근사 카이제곱 539.658(자유도 45)로 나타났다. 이 또한 요인분석 결과가 적실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요인 1은 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도이며, 요인 2는 투표 효능감이다. 그리고 요인 3은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선거참여 활동에 대한 것이다. 이를 정치 관심도, 정치적 효능감 그리고 정치 참여도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3개의 변인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즉, 정치 관

〈표 4〉 이념성향 분포

이념성향	빈도	%
◎ 진보	44	11,5
①	58	15,2
②	113	29,7
③	92	24,1
④	36	9,4
⑤	13	3,4
⑥	11	2,9
⑦	6	1,6
⑧	5	1,3
⑨	2	,5
⑩ 보수	1	,3

심도, 정치적 효능감 그리고 정치 참여도로 구분하여 세대 단위와 실제 세대 사이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념과 정책에 대한 태도는 본인의 이념적 정향을 11점 척도로 묻은 설문문항을 이용했다. 0일수록 진보적 성향이며 10일수록 보수적 성향이다. 응답자들의 이념성향 분포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이념척도 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진보적 성향이라고 응답한 수는 전체 381명 중 343명(90%)이며, 보수적 성향이라고 응답한 수는 25명(6.6%)이다. 이는 86세대의 이념 성향이 진보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책에 대한 태도는 정책 현황과 관련된 8개의 문항을 요인분석하여 변인을 축소했다. 먼저 이들 문항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한 결과, 크론바흐(Cronbach)의 알파값이 0,485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설문항목은 신뢰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요인분석 결과는 99%의 유의 수준에서

〈표 5〉 정책에 대한 태도 요인분석 결과

항목	1	2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732	-.036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해야 한다	-.717	-.190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	.708	.125
지금보다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020	.716
외국어고, 자립형 사립고를 폐지해야 한다	-.038	.696
지금보다 복지를 더 확대해야 한다	.458	.562
대기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354	.550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480	.522

KMO 측도는 0.818로 분석되었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의 근사 카이 제곱이 537.294(자유도 28)로 검증되었다. 베리맥스로 회전된 요인은 2개 추출되었으며, 요인 1은 안보와 관련되었으며, 요인 2는 국내 정책 현황인 증세, 대기업 규제, 복지 확대, 최저임금 상향 조정 그리고 특목고 및 자사고 폐지와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요인 1을 안보에 대한 태도로 그리고 요인 2를 경제 및 사회복지에 대한 태도로 개념화했다.

마지막으로 정치제도 및 헌법 개혁에 대한 태도를 요인분석했다. 정치제도 및 헌법 개혁에 대한 태도를 질문한 문항의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는 신뢰성이 존재함을 보이고 있다. 즉, 크론바흐(Cronbach)의 알파 값이 0.440로 분석되었다. 베리맥스 회전을 이용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99%의 유의 수준에서 KMO 측도는 0.586로 분석되었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의 근사 카이제곱이 73.430(자유도 6)로 검증되었다. 추출된 요인은 1개이다.

〈표 6〉 정치제도 및 헌법 개혁에 대한 태도 요인분석 결과

항목	1
선생님께서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하지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54
선생님께서 “대통령선거에서 과반수의 득표를 한 후보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를 한 두 후보들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십니까?	.703
현재 1위 대표제 중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에 어떠한 의견이십니까?	.505
선생님께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458

#### 4. 분석 결과

86세대 내의 집단 사이에 사회적 자본의 정도의 차이를 집단별 평균 분석기법(ANOVA 검증)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사회적 자본의 정도를 구성하는 호혜성과 연대성에 있어 세대 단위와 실제 세대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검증했다. 그리고 이들 사이의 관계 심도를 보면, 세대 유형과 호혜성 사이는 에타값이 0.225이며, 세대 유형과 연대성 사이는 에타값이 0.213으로 나타났다.

세대 단위와 실제 세대 사이의 호혜성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세대 단위는 0.267이었으며, 실제 세대는 0.183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세대 단위가 실제 세대보다 호혜성의 정도가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연대성도 호혜성과 같이 세대 단위는 평균값이 0.262이며, 실제 세대는 0.173으로 분석되었다. 이 또한 실제 세대보다 세대 단위가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7〉 86세대 유형과 사회적 자본의 정도

86세대의 세대유형		호혜성	연대성
세대 단위(150)	평균	0,276230	0,262059
	표준편차	0,74578075	0,94634308
실제 세대(227)	평균	0,182531	0,173166
	표준편차	1,1013254	0,99878824
합계(평균)		0,0000	0,0000
F값		19,967***	17,876***
에타		0,225	0,213

\*\*\*:  $p < 0,001$

정리하면 세대 단위는 실제 세대에 비해 호혜성과 연대성이라는 사회적 자본의 정도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세대 단위가 실제 세대보다 협력과 집단행동의 용이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세대 단위와 실제 세대 사이의 정치적 정체성의 차이를 집단별 평균 분석 기법으로 분석했다. 정치적 정체성은 앞서 수행한 요인분석 결과에서 추출된 요인값을 이용했다. 그 결과, 정치적 정체성 중 정치 관심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F값 12,831\*\*\*).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세대 단위의 평균값은 0,224이며, 실제 세대의 평균값은 0,146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세대 단위가 실제 세대보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세대 단위는 평소 정치에 대한 관심,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관심 그리고 대선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자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표 8〉 86세대의 세대 유형과 정치적 정체성 사이의 관계

86세대의 세대 유형		정치에 대한 관심
세대 단위(150)	평균	0,224266
	표준편차	1,10169264
실제 세대(227)	평균	0,145627
	표준편차	0,90099355
합계(평균)		0,0000
F값		12,831***
에타		0,181

\*\*\*:  $p < 0,001$

그러나 86세대의 유형과 정치적 관심도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 심도는 매우 낮다. 즉, 에타값이 0.181로 세대 단위와 실제 세대라는 세대 유형과 정치 관심도 사이의 관계가 매우 약한 관계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세대 단위와 실제 세대 사이에 정치적 관심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9〉는 86세대의 세대 단위와 실제 세대 사이에 정치적 정체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요인들이다. 그러나 평균값을 비교했을 때 의미 있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전체적으로 세대 단위와 실제 세대보다 정치적 정체성에 있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투표 효능감을 보여주는 정치적 효능감은 실제 세대보다 세대 단위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선거 과정에서 선거 참여 활동의 정도인 정치 참여도도 세대 단위가 실제 세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대 단위가 실제 세대보다 정치적 효능감과 정치 참여에 있어 더 적극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9〉 86세대의 세대 유형과 정치적 정체성 사이의 관계

세대 유형	항목	정치적 효능감	정치 참여도	이념 성향	안보	경제 및 사회복지	정치제도 개혁
세대 단위	평균	.076161	.014383	2.43	.053216	.003267	.005959
	표준편차	.934690	.954022	1.766	.877722	1.048466	.964457
실제 세대	평균	.049455	.009339	2.52	.034556	.002122	.003869
	표준편차	1.039213	1.030693	1.747	1.072402	.969546	1.024472
합계	평균	.000000	.000000	2.48	.000000	.000000	.000000
	표준편차	1.0	1.0	1.753	1.0	1.0	1.0
F값		.1437	0.51	0.231	0.700	0.003	0.009

다음으로 이념 및 정책에 대한 태도를 보면, 세대 단위의 이념 성향이 실제 세대의 이념 성향보다 더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평균인 2.48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대 단위는 2.43이었으며, 실제 세대는 2.52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세대 단위는 안보, 경제 및 사회복지에 대한 태도에 있어 실제 세대보다 더 진보 개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치제도 개혁에 대해서 실제 세대보다 세대 단위가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투표 연령을 만18세로 인하하고, 대통령 선거제도로써 결선 투표제를 찬성하는 입장이 강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그리고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 강했다. 헌법 개혁과 관련하여 “헌법 개정 시 어떠한 정부 형태를 가장 선호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세대 단위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응답이 82.7%(315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이원정부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29명(7.6%)로 나타났다. 4년 중임 대통령제에서 대해서 세대 단위는 89.3%가 선호했으며 실제

〈표 10〉 헌법 개정 시 선호하는 정부 형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4년 중임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분권형 대통령)	의원내각제
세대 단위	5	134	7	4
	3,3	89,3	4,7	2,7
실제 세대	15	181	22	13
	6,5	78,4	9,5	5,6
합계	20	315	29	17
	5,2	82,7	7,6	4,5

세대는 78.4%가 선호했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입장은 세대 단위의 경우 5명(3.3%)이었으며 실제 세대는 15명(6.5%)이었다.

정리하면, 사회적 자본 그리고 정치적 정체성에 있어 세대 단위와 실제 세대 사이의 평균값의 차이는 호혜성이 0.459로 가장 크며, 경제 및 사회복지에 대한 태도가 0.005로 가장 작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세대 단위와 실제 세대 사이의 사회적 자본의 정도와 정치적 정체성에 있어 호혜성, 연대성 그리고 정치 관심도가 다른 요인들보다 평균값의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86세대 내 집단 간 특성을 찾을 수 있다. 반면 정치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다른 요인들의 경우는 86세대 내 집단 간에 평균값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동질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의 정도를 측정하는 호혜성과 연대성이 정치적 정체성과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사회적 자본의 정도를 측정한 호혜성은 정치적 효능감, 정치 참여도, 이념 성향 그리고 안보에 대한 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즉, 호

〈표 11〉 세대 단위와 실제 세대 사이의 평균차(절대값)

	호혜성	연대성	정치 관심도	정치적 효능감	정치 참여도	이념 성향	안보	경제 및 사회복지	정치제도 개혁
세대 단위	0,276	0,262	0,224	0,076	0,014	2,430	0,053	0,003	0,006
실제 세대	0,183	0,173	0,146	0,049	0,009	2,520	0,035	0,002	0,004
평균차	0,093	0,089	0,078	0,027	0,005	-0,09	0,018	0,001	0,002
범위	6,086	5,180	3,741	5,450	5,876	10	7,116	5,845	5,846
최소값	1,492	2,294	2,351	1,314	1,740	0	1,968	2,421	1,319
최대값	4,594	2,886	1,391	4,136	4,137	10	5,148	3,425	4,527

〈표 12〉 사회적 자본과 정치적 정체성 사이의 상관성

	정치 관심도	정치적 효능감	정치 참여도	이념성향	안보	경제 및 사회복지	정치제도 개혁
호혜성	.049	.258***	.160**	.163***	.120*	.099+	.062
연대성	.064	.117*	.063	.115*	.039	.023	-.031

+: p<0,1, \*: p<0,05, \*\*: p<0,01, \*\*\*: p<0,001

혜성이 강할수록 정치적 효능감이 높고, 정치에 참여도 높고, 그리고 이념과 안보에 있어 진보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호혜성과 정치적 효능감 사이의 상관계수가 0.258로 다른 요인보다 관계 심도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연대성은 정치적 효능감 그리고 이념 성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연대성이 높을수록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지며 진보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관관계가 0.2 이하로 아주 미약한 관계 심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

과는 호혜성과 연대성이 강한 세대 단위가 실제 세대보다 정치적 효능감과 정치 참여도가 높고, 이념 성향 그리고 안보에 대한 태도에 있어 상대적으로 진보적임을 추정할 수 있다.

## 5. 결론

이 연구는 86세대를 중심으로 세대 단위와 실제 세대 사이에 사회적 자본의 정도와 정치적 정체성의 차이를 분석했다. 그리고 86세대 내에서 사회적 자본의 정도와 정치적 정체성 사이의 관계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86세대 내의 세대 단위와 실제 세대 사이에 사회적 자본의 정도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정치적 정체성 중 정치관심도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다. 즉, 86세대 내 세대 단위는 호혜성과 연대성 그리고 정치 관심도가 실제 세대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정치적 정체성의 다른 요인인 정치적 효능감, 정치 참여도, 이념 성향, 안보와 경제 및 사회복지에 대한 태도 그리고 정치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세대 단위와 실제 세대 사이에 차이가 없이 동질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86세대가 전반적으로 진보 개혁적인 세대정신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86세대의 보수화 경향이 세대 효과의 약화 또는 세대 내 균질성의 약화(박병영 2007)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86세대에서 사회적 자본 정도와 정치적 정체성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자본으로서 호혜성과 연대성이 정치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인 중 일부 요인에만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즉, 호혜성은 정치적 효능감, 정치 참여도, 이념 성향과 안보에 영향을 주며, 호혜성과 이들 요인 사이에 긍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연대성은 정치적 정체성 중 정치적 효능감과 이념 성향과 긍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정도가 높을수록 정치적 효능감과 참여도를 높이고 이념 성향과 안보에 대한 태도에 있어 진보적 성향을 가지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세대 연구에 있어 세대 간 비교뿐만 아니라 세대 내 세대 단위와 실제 세대 사이의 관계를 분석할 때 세대 효과에 대해 보다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같은 세대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호혜성과 연대성 정도가 세대 효과로서의 정치적 정체성을 이해하거나 또는 세대 내의 집단 간 차이와 특성을 이해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의 한계는 86세대의 세대 단위와 실제 세대를 구분함에 있어 전대협 간부 경험 여부를 기준으로 했다. 이는 엄격한 세대 내 집단 구분이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세대 연구를 위한 조사 과정에서 세대 단위와 실제 세대 그리고 세대 위치를 범주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86세대 전체에 대한 표본의 모집단 대표성에 있어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86세대 내의 집단 간 비교를 통해 특성을 설명하려는 예비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86세대의

연구에 있어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86세대 내의 집단 구분을 위한 기준 마련과 86세대를 대표하는 표본의 확보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의 86세대의 정치적 정체성의 변화 및 지속 등의 연구가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 ~~XXXX~~

## 참고문헌

- 강원택. 2009. “386세대는 어디로 갔나?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의 이념과 세대.” 김민전·이내영 공편,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 3』. EAI. 69-96.
- 고길섭. 2010. “386세대의 ‘그날’: 주체형성, 세대정신, 그리고 삶의 정치.” 『문화과학』 62호. 113-135.
- 고원. 2005. “386세대의 정치의식변화 연구.” 『동향과 전망』 63호. 201-224.
- 김동현. 2007. “87년 6월항쟁의 주역 전대협, 그들은 어디에 있나?” 『월간 말』 6월호. 10-15.
- 노환희·송정민·강원택. 2013. “한국 선거에서의 세대 효과: 1997년부터 2012년까지의 대선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2권 1호. 113-140.
- 박명호. 2009. “2008 총선에서 나타난 세대 효과와 연령효과에 관한 분석: 386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8권 1호. 65-86.
- 박병영. 2007. “1980년대 민주화운동 세대의 정치적 정체성.” 『현상과 인식』 31권 1-2호. 81-101.
- 박원호. 2012. “세대균열의 진화: 386세대의 소멸과 30대 유권자의 부상.” 『한국 유권자의 선택 1』. 아산정책연구원. 183-217.

- 박재홍. 2003. “세대 개념에 관한 연구: 코호트적 시각에서.” 『한국사회학』 37집 3호, 1-23.
- 서현진. 2008. “17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참여와 세대에 대한 연구.” 『의정연구』 14권 2호, 117-142.
- 송경재. 2013. “사회적 자본과 한국의 시민참여.” 『한국정당학회보』 12권 2호, 221-244.
- 오세제. 2015. “386세대의 세대 효과의 특징연구: 세대 효과의 조건적 표출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25집 1호, 133-164.
- 오세제·이현우. 2014. “386세대의 조건적 세대 효과: 이념성향과 대선투표를 대상으로.” 20권 1호, 201-230.
- 윤상철. 2009. “세대정치와 정치균열: 1997년 이후 출현과 소멸의 동학.” 『경제와 사회』 제81호, 61-88.
- 이남영. 2008. “지역주의와 세대갈등: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평화학 연구』 9권 3호, 283-305.
- 정진민. 1994. “정치세대와 14대 국회의원 선거.” 『한국정치학회보』 28집 1호, 257-274.
- 조대엽. 2002. “한국의 사회운동세대, 386.” 『계간 사상』 가을호, 125-147.
- 차재권·류태진. 2017. “사회적 네트워크의 신뢰에 대한 영향 분석: 사회자본론의 관점에서.” 『21세기정치학회보』 27집 2호, 51-80.
- 퍼트남, 로버트(Robert Putnam). 2000.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안청시 외 옮김. 서울: 박영사.
- \_\_\_\_\_. 2009. 『나 홀로 불링』. 정승현 옮김. 서울: 페이퍼로드.
- 황아란. 2009. “한국 정치세대의 이념적 특성과 정치행태.” 『한국과 국제정치』 25권 3호, 191-217.

- Granovetter, Mark.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78, No. 6. 1360-1380.
-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annheim, Karl. 1952. "The Problem of Generation." P. Keeskemen ed.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omparison of Social Capital and Political Identity  
among Groups in 86 Generation**  
Focusing on Student Movement Activists

Kim, Hyung Chul  
Sungkongho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capital and political identity between the generation unit and generation as an actuality in the 86-generation. To do this, we used data from political consciousness survey, such as political orientation and attitude related to Korean democracy, conducted on July 5 to 21. As a method of analysis,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to measure the degree of social capital and political identity, and the ANOVA was used for comparison between the generation unit and generation as an actuality in the 86-generation. As a result of analysis, it was analyzed that the generation units have higher reciprocity, solidarity and political interest than generation as an actuality of the 86-generation. On the other hand,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participation, ideological orientation, attitudes toward security and economic and social welfare, and political system reform were found to be homogeneous between generation units and generation as an actuality. Also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social capital, the higher the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higher the progressive nature in ideological and

security attitudes.

■ **Keyword:** Social Capital, Generation Unit, Generation as an Actuality, Political Identity, 86-Generation

투고 : 2017/10/2    심사 : 2017/10/17    확정 : 2017/11/15